

BTS 제이홉 '고향사랑기부제' 동참한다

광주 북구에 기부 의사 밝혀... '고향사랑e음' 통해 연 500만원까지 기부 지방 인구감소 대응·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세액공제·답례품 혜택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이 2일 고향인 광주시 북구에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새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열기가 뜨겁다.

전국 자치단체마다 자매결연 도시를 찾아 기부금을 기탁하는가 하면 연예인, 정치인, 기업인 등도 '1호 기부자'로 이름을 올리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가 아닌 고향이나 다른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고향사랑e음(lovegohyang.go.kr) 시스템과 농협은행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제이홉은 광주 북구에서 태어나 초·중·고교 학창 시절을 모두 이곳에서 보냈다. 북구는 이러한 인연을 계기로 제이홉의 부모를 통해 기부 의사를 확인

했다.

현재 미국 방송 출연을 위해 출국 상태인 제이홉이 귀국하는 대로 기부금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홉은 답례품은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회의원이 전남 도와 해남군에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을 기탁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남이 고향인 박 의원은 전남 해남도와 해남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해 1호 기탁자가 됐다. 박 의원의 9명도 같은 날 전남 도와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장성 출신의 정희걸 탐인프라 회장이 기부금을 고향에 기탁했다.

또한 광주의 동구, 서구, 남구는 직장인 등 평범한 시민으로부터 10만원씩을 기부받으며 이날 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을 알렸다. 광주 5개 자치구 중 광산구만 이날 유일하게 1호 기탁자를 찾지 못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맞았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와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는 2일 무안군 삼향읍 지역본부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한 '탈레이 고향사랑기부 동참 캠페인'을 벌였다. 농협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이 기부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국 농협 모든 사무소에 기부금 수납을 대행한다. 이 캠페인은 '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고향사랑기부로 표현하자'는 취지에 공감한 농협 임직원의 자발적인 기부 동참 운동이다.

농협은 기부확대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고객에게 특별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하고, 공익기금을 적립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NH고향사랑기부 예·적금'을 내놓기도 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2일 "제이홉의 기부 의사가 제도 정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방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 현안 재원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1석 3조의 고향사랑기부제가 북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중국발 입국자 모두 PCR 검사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공항 관계자들이 중국발 입국자를 분류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중국에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는 등 고강도 방역 대책을 시작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귀농·귀촌 안정적인 정착 지원해요”

전남도, 창업 3억·주택 7500만원 연리 2% 융자... 25일까지 접수

전남도가 귀어·귀촌인의 안정적 여촌정착 지원을 위해 창업 자금 3억원, 주택 구입·신축·리모델링 자금 7500만원을 각각 2% 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2023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만 65세 이하 귀어·귀촌인(희망자 포함)으로 1년 이상 여촌 이외 지역에 거주하고 여촌으로 이주 후 5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최근 5년간 귀어 관련 교육 5일(35시간) 이상 이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수산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바라는 사람은 사업계획서와 신용조사서, 가족관계증명서,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를

받기별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김중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귀어인의 안정적 여촌 정착과 귀어인을 환영하는 여촌 분위기 조성을 큰 과제로 삼고 있다"며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 지원과 함께 여촌살이 기회 제공, 수산업경영 기술 교육도 함께 추진해 수산업 중심의 젊고 활기찬 여촌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전남 귀어인은 403명으로 전국 광역자치체 중 1위(33.1%)를 차지해 전남이 귀어 일반지로 확실히 자리잡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귀어·귀촌인(희망자)의 사업 수혜 편의를 위해 신청 횟수를 1회에서 4회로 늘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경매입찰, 강추 도초설 내 입야, 1월 9일 입찰
낙찰시 100억 가치 있음
단독, 공동입찰 하실 분. 오전경매. 010-3605-5000

5·18진상조사위, 광주일보에 감사패

80년 5월 진실 알리는데 공헌 3600여 장 사진 귀중한 역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1980년 5월 진실을 알리는데 공헌한 광주일보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관련기사 7면>

진상조사위는 2일 김여송 광주일보(한국신문협회 부회장)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에 앞서 5·18 진상규명에 중요한 사진 등을 제공한 공로로 광주일보에 보상금 1000만원도 지급했다.



광주시 동구 금남로 광주일보사에서 2일 송선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이 김여송 광주일보 회장(오른쪽)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나명주 기자 mjna@

1980년 5·18 당시 진실을 알리려 광주일보 기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3600여 장의 사진이 진상규명의 거름알을 밝히는데 귀중한 역할을 한 점을 인정한 것이다.

1980년 당시 유일한 광주지역 신문사였던 광주일보의 사진기자들은 5·18을 전후로 금남로 등 광주 곳곳 현장에서 그날의 진실을 기록했다.

계엄군에게 발각돼 총을 맞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고층 건물에서 난간 밖으로 카메라를 내밀어 광주 참상을 렌즈에 담았다. 보안대 요원들이 신문사와 사진기자 집에 쳐들어와 필름을 압수해 갔지만, 광주일보 기자들은 필사적으로 원본 필름을 지켜냈다.

이들 사진자료는 광주일보 자료실 파일철에 40여년 동안 봉인됐다가 진상조사위가 광주일보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면서 지난해 데이터베이스화 돼 빛을 보게 됐다.

진상조사위에 제공한 자료중에선 5·18 당시 광주 금남로에 출동한 장갑차의 기관총에 실탄이 장착된 것을 포착한 사진이 발견되면서 '발포지체가 자위권'이라는 전두환 계엄군의 주장을 깨뜨리는 증거가 됐다.

또 태극기에 싸여 픽업트럭에 실려 있는 시신 1구가 찍힌 사진은 행방불명자를 찾는 단서가 됐고, 금남로 4가에 혼자 덩그러니 쓰러져 있는 시신 사진도 계엄군의 저격병 운용을 조사하는 증거로 활용됐다.

이외에도 5·18 직전 광주지역 대학이 민주화 요구 시위, 계엄군의 시민 진압 장면, 학교 휴교, 어용교수 규탄 시위, 헌혈, 계엄군에 희생된 시민, 5·18 유혈 진압 직후 도청과 금남로 모습 등을 담은 사진도 발견됐다.

한편 진상조사위는 광주일보 임동욱 선임기자, 나명주 사진부장, 정병호 기자에게도 감사패를 전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

위·변조 차량 실시간 확인... 발급 수수료 연간 36억 원 절감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포함한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 봉인제는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해두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번호판이 도입돼 봉인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봉인 발급과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데다 시

간지 지나면 봉인이 부식돼 녹물이 흘렀기 때문이다.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하는 것과 이원차에는 봉인을 부착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로 국민이 부담하는 약 36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번호판 봉인 신규등록은 174만3000건이었고, 재발급은 7만8000건이었다. 건당 수수료는 평균 1000~3000원이다.

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려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토부는 이날 중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금매”
법인까지 함께 인수.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391-3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산단1길 12-8)

대지 공장용지 12114.6 (3,665 평)
건물 1) 일반철골구조 판별지붕 단층공장 1,326 (400 평)
2) 일반철골구조 판별지붕 2층 사무실 234.6/234.6 (70/70평)

소유자 (주) 크로스지 - 2011년 설립, 제조업

재무액 현황
금융권 채무 33억8천만원 기타채무(1곳) 4억5천만원
시보보증금 7억 (공장등록 5년후 소멸)

* 인수총액 39억8천만원
실인수금액 6억 (기타채무 4억5천 포함)

010-3812-1394, 070-7747-1399

고졸 조대부고 총동창회
“2023 신년음악회”

- 일시: 2023. 1. 5(목) 18:00
- 장소: 조선대학교 대호전기를
- 전화: 062-224-1461
- 대상: 전 동문 가족동반
- 떡국, 다과, 주차권 제공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김 광 태

특별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기영근(721211-XXXXXX)
• 최후주소: 광주 북구 상정로 7, 205동 1501호 (두암동, 주공아파트)

피상속인 망 기영근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특별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2년1366호로 신청하여 2022년 12월 27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1월 3일
• 상속인: 1. 양경혜(721211-XXXXXX) 2. 기영준(941218-XXXXXX) 이천시 대월면 경중대로2041번길 167, 101동 1105호 (현대전자아파트) 3. 기수원(980314-XXXXXX) 상속인 1, 3 주소: 안산시 상록구 석삼말로1길 12-11, 201호(아동)

• 신고기간: 2023. 1. 3. ~ 2023. 3. 15.
• 채권신고처: 상속인 1. 양경혜의 주소

특별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이우경(800606-XXXXXX)
• 최후주소: 광주 남구 월산로151번안길 27-2 (월산동)

피상속인 망 이우경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특별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2년1214호로 신청하여 2022년 12월 14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1월 3일
• 상속인: 김경숙(540418-XXXXXX) 인천 남동구 호곡로899번길 8, 102동 705호(간석동, 두진아파트)

• 신고기간: 2023. 1. 3. ~ 2023. 3. 15.
• 채권신고처: 상속인 김경숙의 주소

해산 및 채권계출공고(1차)

당 조합은 2022년 12월 16일 조합원해산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22년 12월 28일자로 해산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당 법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채권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제출이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리는 바입니다.

2023년 1월 3일
중흥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광주광역시 북구 서방로 38, 2층 (중흥동)
대표청산인 민 병 진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0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네남**

광교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행구독 220-0550